

경찰 “문힐뻐한 ‘계곡 살인’ 검찰 밝혔다는 주장 사실과 달라”

남구준 국수본부장, 정례 간담회…“경찰·검찰 각자 역할 다한 것” “일산서부署, 재수사로 혐의 밝혀…이후 檢 추가 혐의 사실 밝혀”

경찰이 ‘가평 계곡 살인사건’ 관련 당초 단순 변사 종결 이후 검찰의 수사가 사건을 밝혀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8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단순 변사종결한 것을 검찰이 밝혀냈다는 일부 주장은 분명히 사실과 다르다”고 말

했다.

남 본부장은 “최초 가평경찰서에선 부검과 통화내역, 주변인 조사를 했지만 명확한 혐의 드러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면서도 “일산서부경찰서에서 재수사 착수해 혐의 밝혀내고 송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검찰에서 추가 혐의 사실을 밝혀냈다”며 “경찰과 검찰이 각자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앞서 인천지검은 이른바 ‘검수완박’ 추진에 반발해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당시 인천지검은 입장문에서 “검수완박 상태였다면 경찰에서 확보한 증거만으로 기소해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증거부족 무혐의 처분

을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실상 계곡 살인 사건의 범행 입증의 결정적 역할은 경찰이 아닌 검찰이 쥐고 있었다는 취지다.

이에 경찰은 단순 변사 종결과 이후 재수사 모두 경찰과 검찰이 함께 진행한 것으로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문힐 사건이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한 셈이다.

아울러 남 본부장은 “인천 석바위 사거리 교통사고는 당시 인근에서 발생한 5년 치 사건을 확인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없다”며 “태국 파타야 스노클링 사고와 관련해서는 태국 사고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유유나기자

순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목재제품 시장, 유통질서 확립·소비자 보호에 힘써



순천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관련업체에서 목재생산업 등록증과 규격·품질검사 결과통지서 등 서류를 확인하고,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한 후 시료채취·분석을 통해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을 제한될 수 있다.

순천=김승호기자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정지 복지부 “의사 면허 취소 절차 중단”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의사 면허 취소 절차도 중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일 뉴시스에 “법원 판단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절차도 중단된다고 밝혔다.

부산지방법원 제1형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이날 오전 조씨의 입학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분안 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정지한다고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최종 결정할 바

있다. 조씨가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했을 당시 부산대 학칙에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취소한다’고 명시한 점,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반영한 것이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화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는 의사면허 관리 주무부처로서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복지부는 다음달 4일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관련 청문회를 열고 11일에 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조씨는 분안소송 판결이 선고된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부산대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조씨는 의전원 입학취소 발표 당일인 지난 5일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입학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슬비기자

확진자 격리 없으면 출근은?...“아플땐 쉬는 문화 정착 지원”

“거리두기 해제, 유행 영향 제한적...추이 관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지더라도 아프면 쉬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문화적 개선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향후 코로나19 격리가 자율 격리로 바뀐다는 점을 염두할 때 아플땐 쉬 수 있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상병 수당을 포함해 우리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간 격리가 의무이지만 향후 감염병 등급이 2등급으로 하향되

면 이르면 5월23일부터 의무 격리에서 자율 격리로 바뀔 수 있다. 앞으로는 확진자 스스로 출근이나 등교를 자제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손 반장은 “정부도 (아플땐 쉬 수 있는 문화에 대해) 제도적·문화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고 우리 사회도 이에 대해 고민하고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날부터 전면 해제됐다. 아울러 정부는 가동률이 낮은 감염병전담병원 중증증 병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한 달 간 이행기 동안에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정부 지원 여부, 치료비 본인부담 비율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의 경우 다음

주까지 유행 상황을 보고 변경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재유행이나 위중증 환자·사망자 수 급증과 같은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4만7743명으로 69일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손 반장은 “현재 거리두기의 유행 확산 억제 효과성이 떨어지면 유행 때보다 떨어져서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확진자 숫자 변동으로 나타날 것이기에 향후 일주일간 관찰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 반장은 “거리두기 해제가 코로나19 종식이 아님을 기억해 달라”며 “60세 이상 고령층은 개인 방역 수칙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이슬기자

‘문 열린 차량 훔쳐’ 무법질주한 중학생들 입건

훔친 승합차를 면허 없이 몰다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10대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훔친 차량을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수절도 등)로 A(14)군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군 등 2명은 지난 15일 오전 4시 5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문이 열린 승합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 A군은 훔친 차를 몰다 서구 한 아파트단

지에 세워진 차량 1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사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후사경이 접하지 않은 차량을 노려 금품을 털려다, 침입한 승합차에 시동이 걸리자 훔쳐 몰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 면허 없이 차량을 몰기 시작한 A군 일행은 승용차 접촉 사고를 낸 뒤 곧바로 전남 나주~목포 일대로 80여km를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기동취재본부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털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